

정영희

4세 현재 54세

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실종



HOPE TAPE

잃어버린 아이의 부모들은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

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택배 상자에 희망을 붙여주세요



정성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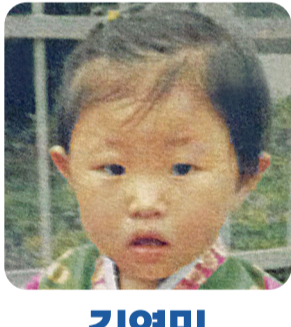
5세 현재 57세

부산 진구 개금동에서 실종
둥근 얼굴



실종아동 신고전화 182

호프테이프는 공익 목적으로 제작된 비매품입니다



김영민

2세 현재 41세

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실종
토끼처럼 쫘긋한 귀



HOPE TAPE

잃어버린 아이의 부모들은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

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택배 상자에 희망을 붙여주세요



최영희

4세 현재 35세

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실종
오른쪽 허벅지 지름 5cm 검은 반점



실종아동 신고전화 182

호프테이프는 공익 목적으로 제작된 비매품입니다